

이덕일의 '역사의 창'



평등한 세상의 길

성호 이익의 제자 중에 윤기(1741~1826)라는 인물이 있다. 서른셋의 나이로 생원시에 급제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장자'(莊子) '도적'편에 따르면 춘추시대 대도(大盜)인 도적은 도적 때 구천 명을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며 온갖 악행을 자행했지만 천수를 누렸다. 그래서 동양사회에서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말할 때 도적과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나 백이·숙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회나 백이·숙제는 도리를 지키며 살았지만

나아가 "심지어 부처(夫妻)가 며칠 사이에 모두 죽었으니 운명의 불우하고 간단한 것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 이 사람에게만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라고 애통해 했다. 이런 경우들을 두고 인명이나 화복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록을 먹는 벼슬아치나 지식인들이 이런 운명론에 매달리는 것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역대 선비정신을 가진 벼슬아치나 지식인들은 불평등한 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어왔다.

성호 이익의 아들 이맹휴(李孟休·1713~1751)는 천재로 이름났으나 부친보다 이른 영조 27년(1751)에 사망했다. 이익은 잠적(慘賊·지식이 먼저 죽는 슬픔)의 아픔을 딛고 '망자 정랑 행록'(亡子正郎行錄)을 썼는데, 그중 이맹휴가 영조에게 올리려고 썼던 '봉사'(封事·밀봉한 상소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맹휴는 '봉사'에서 영조에게 세상을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백성들 중에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따뜻한 자와 오한에 든 자, 일하는 자와 놀고먹는 자가 있게 한다면 비록 어진 어머니라도 자식의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맹휴는 세상을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것들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을 하나로 합하고,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하나로 합하고, 중앙과 지방을 하나로 합하고, 문인과 무인을 하나로 합하고, 부자와 빈자를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자를 통합해서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익은 이 글을 소개하면서 "때를 기다려 임금을 올리기를 바랐는데 뜻을 이루기 전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아들의 조사(弔死)를 안타까워했다. 조선시대에도 이처럼 신분, 지역, 빈부의 통합을 이야기했던 개혁적인 선비들이 늘 있었다. 지금까지 써지지 못하고 스러져 갔지만 그 소리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최선필 최선필 피부과 원장

아토피 피부염 치료 불가능하지 않다

렇게 알레르기 감작이 된 경우에 감작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다시 노출될 때,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 알레르기라고 한다. 특히 이 경우 피부에 습진성 알레르기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알라겐이 체내에 들어와 그 특정 알라겐과 결합하는 'IgE항체'(알레르기 유발항체)가 생기고, IgE 항체에 의해 유발되는 알레르기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 밝혀졌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식품알레르기는 알레르기 항체와는 관계가 없고, 알라겐과 결합하는 'Th2' 세포라는 세포매개성 식품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학적 체계를 밝히고, 임상적으로 원인 진단·치료에 이르는 첫 걸음에 된다. 이이 2001년 인터페론 감마라는 면역물질 치료에 의해 식품알레르기 근본 치료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필자는 이 시기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진단과 치료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3세 미만의 아이들, 특히 1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먹는 것,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주요한 원인을 이룬다. 3~5세 경에는 집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환경원인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획득하게 된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는 돌에서 3세에 이르러 대개 자가치유능력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3~5세에 이르면서 주로 집먼지 진드기를 비롯한 꽃가루와 같은 환경원인에 대한 알레르기를 획득, 천식이나 비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이 영유아 때에 올다가 저절로 좋아지고, 천식이나 비염이 3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인까지 지속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식품알레르기가 소실되지 않고,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환경원인도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한 원인이다.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환경원인과 식품 원인이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면역병리학적 기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원인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은 같다.

분유를 먹는 영유아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카제인 성분을 분해한 특수 분유로 바꾸기만 해도 30%의 환자가 바로 호전된다. 특수 분유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적절한 분유로 바꾸면 아기의 아토피

피 피부염은 바로 좋아진다.

모유를 먹는 아가는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다. 따라서 엄마도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

연구진들은 이후 우유, 달걀, 밀가루, 대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의 7가지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한 유발원인을 밝혀내고 (물론 다른 음식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급 진전하게 된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크게 식품원인과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흡입항원 등 두가지로 나뉜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진단은 알레르기 관련 기본 검사를 통해서 흡입항원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고, 식이제한과 음식을 먹어서 유발과 악화를 진단하는 경구식품유발검사를 통해 식품 원인을 파악한다.

식품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치료가 7~10일 정도 이뤄지며,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흡입항원에 대한 치료는 약 40회 치료가 필요하다.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며, 이제 치료를 넘어 알레르기 행진에 의한 천식이나 비염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대가 됐다.

기고



박안수 경제학박사·전 농협 장흥군지부장

국립 한국문학관은 장흥군이 최적지

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복원·보존·아카이브, 연구·전시,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자 박물관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문학 진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광객 유인 효과도 높을 것이다.

문학진흥법에 의하면 국립 한국문학관은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현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규모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과 출판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부지평가 위원회를 6월 초 구성해 서유선사와 현장 실사, 시청각 심사 등을 거쳐 7월 안으로 건립용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응모를 신청한 지자체마다 그만한 타당성과 장점을 내세워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강원도가 후보지역을 단 한곳으로 압축했다. 전남도는 장흥군을, 강원도는 춘천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남 도내 경쟁 지자체가 양보한 셈인데 '선박과 집중'을 통하여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한다. 특히 장흥군의 관계자들은 한치의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최대한 유리한 점을 홍보해 평가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흥군이 지자체 24곳 중

가장 최적의 적임지이고 반드시 장흥군을 선정해야 할 당위성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흥군은 국내 최대 문향(文香)으로 한국문학관의 최적지가 아닐 수 없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김영남, 이대훈, 위선환 등 현대문학 등단 작가만 해도 120여 명을 배출했으며, 현대문학을 빛낸 24명 중 3명이나 포함된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흥의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한 문학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기도 한승원 작가의 딸로 그 뿌리는 장흥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 가사 중 가장 오래된 기행가사인 '관서별곡'의 백광홍 역시 장흥출신으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장가이다.

둘째 장흥군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천관산 기슭에 출신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돌탑 시비와 기념비가 100여 개나 조성돼 있어 젊은 문학인들의 문학투어의 필수코스이자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셋째 문학의 주제와 소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산수(山水)로서, 그 소재가 보편적으로는 산·들·강·바다일 것이다. '길게 흐르는' 장흥(長興)은 산과 들이, 강과 바다가 조화롭게 형성된 지역으로 호남 5대 명산이며 전남 도립공원인 천관산을 위시해 제암산·역불산·사자산·부운산 등 풍광이 빼어난 산들이 즐비하며, 유치 국사봉에서 발원해 장흥읍을 관통하고 있는 탐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득량만이 접해 있는 남해바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시요, 소설이며, 수필이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넷째 장흥교도소가 지난해 용산면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장흥교도소 부지가 현재 국유재산으로 유휴상태인 바 별도의 많은 부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이 관계부처까지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라도 국가기관을 과감히 적임 지자체로의 건설과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이 굳이 문학을 관장하는 기관이 수도권에 존재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립 한국문학관이 장흥군으로 기립코 지정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좀더 늘릴 수 없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이주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평가'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15.5%로 부산(27.0%)·경남(18.8%)·대구(16.5%)에 이어 네 번째에 그쳤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이 지난해 2014년 11.2%에서 4.3%포인트로 소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 비율도 계획(5824명) 대비 90.7%(5281명)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82.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

운데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26.7%(1408명)에 그쳐 전체 평균 26.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이주 직원 비율이 70.4%(240명 중 169명)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급금단은 가족 동반 이주율은 8.3%(121명 중 10명)에 머물러 전체 이전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정주여건 때문이다. 빈약한 교통체계와 문화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아 상당수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주시와 전남도는 더 이상 예산타령만 늘어놓지 말고 하루빨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내건 혁신도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할 것이다.

허술한 치안...신안 경찰서 신설 시급하다

최근 한 섬마을에서 학부형 등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신안 지역 주민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안팎의 호된 비난 여론으로 지역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바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런 가운데 허술한 섬 지역 치안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신안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신안을 관할하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신안군은 전체 면적이 654.34㎢로 서울과 비슷하고 14개의 읍·면에서 4만 4000여 명의 주민이 산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인구는 100여 개에 이르지만 단독 경찰서가 없어 목포경찰서에 배속된 15개 파출소 90여 명의 인력이 치안을 맡고 있다.

파출소의 경찰관은 거주민이 많은 순으로 배치되는데 불과 1~2명만 근

무하는 곳도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현지 치안망이 더 촘촘했다면 피의자들이 그토록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안 경찰서 신설이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정부에 건의해 기획재정부 예산안 의까지 올리었으나 '책상머리' 한계를 넘지 못했다. 우선 예산이 결핍되었으며, 치안 수요가 뒤진다는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순서가 밀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신안은 도서지역 특성상 각종 해난사고는 물론이고 염전의 노동력 착취 같은 강력사건도 종종 일어나 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 육지와 다른 특수한 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내다보고 섬 지역에 거주자를 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걸까.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과 우선 순위만 따지는 행정편의주의를 고집해서 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2016년 4월. 예과도르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사상자 650여 명, 실종자 1만 명에 달하는 대참사였다.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에 동참해 사망자들을 구해 냈다. 이 때 대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최고의 대원'이 있었다. 바로 인명 구조견 다이코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다이코는 4살 때인 2012년부터 이바라 시 소방서 인명 구조견으로 활동했다. 현장에 투입된 다이코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무너진 건물 사이를 수색하며 7명의 생존자를 발견했다.

인명 구조견

실 새 없이 현장에 투입된 다이코는 구조 7일 째 탈수로 갑자기 쓰러졌다. 38도의 무더위 속에서 쉬지 않고 생존자 수색에 나선 게 화근이었다. 사인은 심근경색. 전 세계는 다이코를 애도했다.

8일 인터넷 상에는 늑은 개의 마지막을 배우는 소방대원들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마지막 생존견 '브리티니'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진다. 주인 콜리스 대원과 9·11 현장에 투입된 브리티니는 매일 12시간씩 2주간

생존자 수색에 나섰다. 성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콜리스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브리티니 주변에 모여들어 테러로 잃은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1999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사람 나이로 80세에 달한 브리티니는 병이 깊어져 16번째 생일을 끝으로 안락사가 결정됐다. 콜리스는 브리티니와 함께 일했던 인명 구조견으로 활동했다. 현장에 투입된 다이코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무너진 건물 사이를 수색하며 7명의 생존자를 발견했다.

방관들이 응답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의 역사는 올해로 100년이 된 다. 1916년 1차세계대전 당시 독가스에 시력을 잃은 군인을 애완견이 돕는 걸 보고 독일 의사 게하르트 스타링이 안내견 학교를 설립한 게 그 시작이다.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다. 인류와 함께하며 슬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가.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을 통해 한 업소가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개가 인간에게 전하는 사랑에 따라가려면 멀어도 함참 멀었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net@kwangju.co.kr